



SO[☺]K

서대전속편한내과 의원
둔산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의원

다음 10년,
그 시간은
이 곳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속편한내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개원 10주년

뭘해도 통크고, 확실하게
기꺼이 직원과 함께해주시는 멋진분들
함께한 추억이 많은 우리들의 시간들
그래서 우린 더욱 행복합니다.

10년간 저희 병원을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10년을 위한 우리의 용기와 열정,
그 미래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SO[☺]K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SEK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10주년 축하합니다.
20년도 30년도 함께 해요.”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10년의 발자취

2007.02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로 확장이전
04 속편한종합검진센터 개원
06 전국 속편한내과 워크샵 개최

2007년

2008년

2008.03 위,장내시경 전문 클리닉 부문 수상
08 대한민국 보건산업부문 대상

2009.03 우송대학교 협력병원 협약
04 서대전속편한내과 개원

2009년

2010년

2010.01 메디컬코리아 어워드 내과부문 대상수상
09 메디컬코리아 대상

2011.02 속편한 영상의학 센터 개원
03 KAIST 협력병원 협약
11 64채널 지멘스 192 MSCT/디지털유방촬영기기/
디지털엑스레이 도입

2011년

2012년

2012.01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교육
지정의료기관
02 둔산/서대전 속편한 내과 발전세미나(일본)
03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2013.05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수상
(위,장내시경 부문)

2013년

2014년

2014.02 국제 로타리클럽 3680지구 협력병원 협약

2015.02 남선공원 체육관 협력병원 협약

2015년

2016년

2016.05 속편한 식도이야기 책발행
06 대한우수종합검진센터 인증
12 대한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SEK 속편한내과 네트워크

36개지점

대전 2001.07
서울 2001.09
인천 2001.11

부산 2000.09

울산 2003.03

대구 2002.03
수원 2002.03

제주 2005.02
안산 2005.03
창원 2005.03
전주 2005.05

대구상인 2004.03

군포 2007.01
대전둔산 2007.01
광주 2007.01
일산 2007.03

천안 2006.02
포항 2006.03
구미 2006.03

서대전 2009.04
인천계양 2009.07

안양 2008.03
서울한강 2008.05

부천 2011.01
동탄 2011.01
성남 2011.02
광명 2011.03

청주 2010.07
의정부 2010.07
평택 2010.11

용인 2013.02
구리 2013.04
파주 201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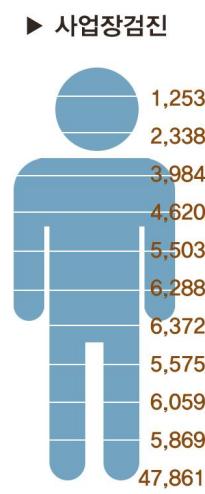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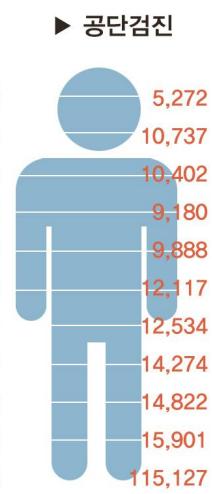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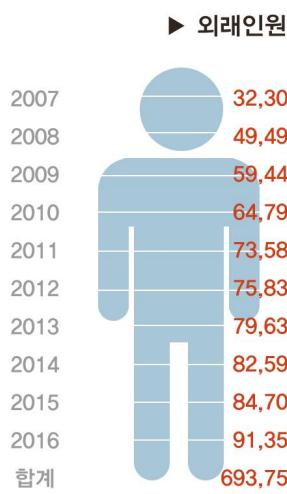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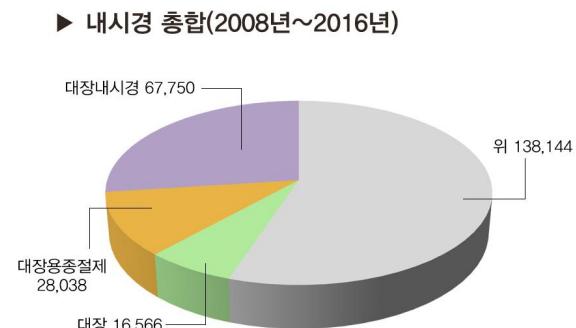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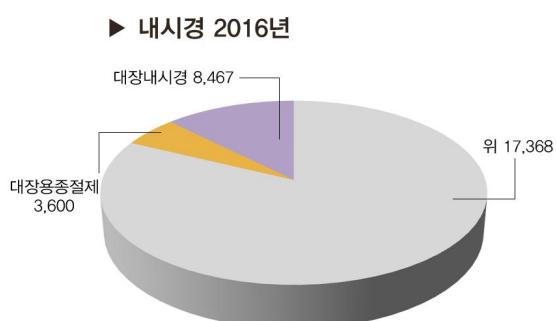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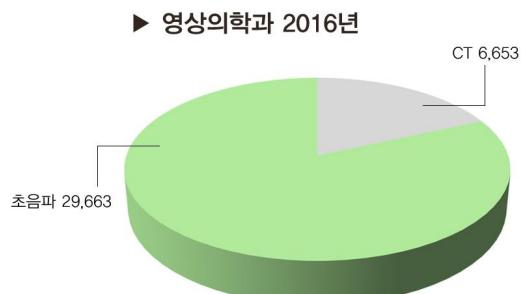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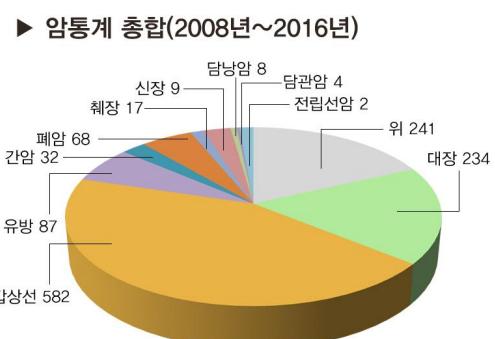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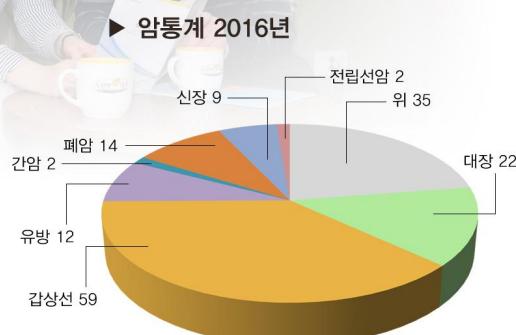
오산 2012.02

과천 2016.06

논산 2015.08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10년의 실적





내시경센터

SEK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영상의학센터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10년 세상에 단 하나, 2007년 2월에 만났습니다.

SOK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

둔산속편한 내과 10년, 박찬욱원장님과 진영주원장님

그리고 몇명의 직원들...

첫해, 함께한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모아

2007년 한해를 보내고 해를 거듭하며

많은 원장님과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함께 끌어주고 최선을 다해

마지막 힘을 모아 세상과 싸웠습니다.

힘들때마다 함께 했던 우리들은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많은 교육으로 발전하고

함께 호흡하며 소통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봉사도 하고 기부하는 따뜻함이 있는 속편한내과.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단체들이 속편한내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성실힘과 열정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2007년 5월
개원단합대회



2007년 8월
전라도산청래프팅



2012년 2월
일본 발전세미나



2012년 9월
경기도용인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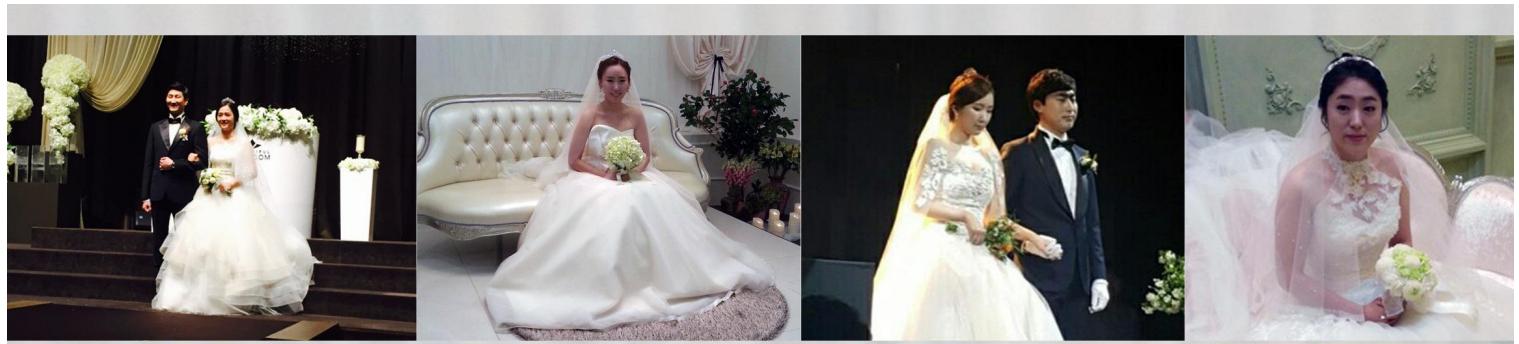
2009년 8월
당황포요트학교워크샵



2010년 5월
전국워크샵



2016년
우수종합검진인증



둔산속편한내과 10년

드라마가 있는 열정의 속편한내과!

뭘해도 통크고, 확실하게

기꺼이 직원과 함께해주시는 멋진분들

함께한 추억이 많은 우리들의 시간들

그래서 우린 더욱 행복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많은 아름다운 그녀들이 신부가되어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여려모습의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보듬으며

점점 드라마틱한 속편한 내과를 만들었습니다.





둔산속편한내과 10년

우리의 성실함과 열정으로 10년을 지나왔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2016년
지금
우리의 일상이 만들어 놓은
속편한내과의 10년.
우리의 용기와 열정으로
속편한 내과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SOK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 10년의 사람들



“개원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의 열정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약하며...

2006년 12월 중순에 현재의 위치에 방문을 하였을 때에는 하얀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속편한 내과의 정신이 깃들어 하나하나 형태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전 대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 매길 병원이 될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SOK” 강한 자부심을 자아내는 단어입니다..

처음 18명의 원장님과 직원들이 1인 다역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돋고 부딪히며 보낸 시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장과 더불어 내원 고객도 늘어나더니

벌써 10주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제 나이도 40대에서 50대를 넘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었네요.

이제까지 지내온 10년은 경험이요. 나아가 20년 아니 30년을 바라보며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깊고 단단한 뿌리가 되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원장님과 직원의 열정으로 더욱 성장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주년을 기약하며 다시 한번 10주년을 가슴 깊이 축하 드립니다.



둔산속편한내과 종합검진센터 김병기 부장



“인생의 전환점” 3번의 기회 중 그 첫번째의 만남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흔히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 3번 중의 1번이

속편한 내과와의 만남인것 같다.

내 나이 25세 때.....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임상병리사라는 면허증을 취득했고,...

한명의 팀원으로 속편한 내과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관리자라는 자리에 와 있는 지금.....

나를 믿어주고 이끌어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듈다

믿음, 신뢰, 사랑. 이 세가지 마음 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10년을 넘게 근무

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것 같다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속편한내과와 함께한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만한 믿음과 신뢰, 감사를 경험할지도 모르겠다.

나의 10년시간이 그랬던것처럼….



서대전속편한내과 이금희 실장

“행복한 10년”

앞으로 20년, 함께 할 수 있는...

짧고도 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벌써 10주년을 맞이한 속편한 내과.
속편한내과와 함께해 따뜻하고 행복한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순간순간 옆에서 힘이 되어준 원장님과 동료들 덕분에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서로를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이 있어 더욱 빛나는 것처럼 함께 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속편한 내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함께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출근 하는 게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모두 10년, 20년 함께 할 수 있는 속편한 내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전 속편한 내과 내시경실 팀장 김민영-



서대전 속편한 내과 내시경실 팀장 김민영



“행복을 만들어가는 병원”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

속편한내과 1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원장, 직원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긴긴세월인데 뒤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갑니다. 기쁜일도, 어려운일도 있었지만 다들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이겨나갔던거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다음의 20주년, 30주년이 되게하는 돌이
되어 금자탑을 만들겠지요. 우리 서로서로를 사랑하면서 또다른 10주년을 만들어 갑시다.

혹자는 ‘사랑은 희생과 배려’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마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가슴에 품고서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속편한내과로
만듭시다.



서대전속편한내과 박찬욱원장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모든 인생 여정의 우선

“ 속편한 내과와 함께한 10년, 그 건강의 숲에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



환자 윤상직

저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속편한내과의 덕후입니다.

속편한내과와 건강검진을 통해 맷은 인연이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그동안 건강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일이 먼저 라는 생각만으로 살았었는데

속편한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의사선생님의 검진 후 상담을 통해 고혈압, 간기능.

그리고 체지방등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장님 처방으로 문제의 부분들을 개선하여 지금은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편한 내과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진심(眞心)이 있습니다.”

속편한내과를 찾는 모든 고객들이 한결같이 느끼시는 것은 임직원 분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시는분들, 또 돌아가시는 고객들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성자와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지금의 속편한내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강은 모든 인생 여정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 순위가 잘 유지 될수록 해주는 데에는 분명 속편한내과가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고객과 그리고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드리는 속편한 내과로
항상 남아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지만 아들 같은 마음”

친절하고 믿음이 가는 병원

어제도 제2진료실 진영주 원장님께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CT 내시경 검사를 위해 정맥을 찾으려고 두 간호사님을 괴롭혔다.

나쁜 체질을 가진 이유로 혈관이 너무 약해 누워 있어도 바늘방석에 누운 것 같은데 간호사님은 “미안합니다. 힘들어서 어떡하세요?”

말하고 진영주 원장님은 바쁜 오전 시간에 5층을 두 번이나 올라오셔서 “고생하셔서 어쩌지요.”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다.

서울에서도 유명하다는 큰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지만 그 곳은 아니다. 진영주 원장님은 늙고 별스런 환자가 이 년에 한 번씩
이맘때면 찾아가서 괴롭혀도 반가워 해주시고 간호사들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웃으며 반겨준다.

진영주 원장님은 의사이지만 아들 같은 마음을 주시기도 한다. 검사결과도 항상 환자가 안심하도록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결과가 늦은 검사는 이튿날 원장님의 직접 전화해주신다. 이 나이가 되면서 건강하지 못한 나는 많은 병의원을 다녀 보았지만,
진영주 원장님은 진정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진료하신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살아갈 날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불편하면 또 찾아갈 것이고 이웃이 아프다면 떳떳하게 소개를 해준다.

속편한 내과와 진영주 원장님이 더욱 발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이다.

단골환자 장정해

“서로 가슴 뛰는 열정”

9년 동안의 땀방울과 성과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병원에 뒤늦게 들어와 일을 시작한지 벌써 9년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낯설고, 새롭게 배워야 하는 업무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일이 서툴렀던 제가 속편한내과에서 여러 해를 보내며 근무를 잘 할수 있었던 것은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는 원장님들과 믿어주고 바라봐 주신 선배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전화상담을 할 때 환자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가 위, 대장 잘 본다고 소문난 속편한 내과 맞나요?”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던 병원이 지금은 진료상담실 앞 대기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유명해졌다는 말을 실감하곤 합니다.

둔산 속편한내과가 이처럼 성장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환자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환자 한명 한명 정성으로 진료해 주시는 원장님들의 땀방울과 각자의 위치에서 쉬지 않고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대에서 한번도 가슴이 뛰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 가슴이 뛰지 않으면 나를 보는 관객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기에..〉

어느 책에서 읽은 글귀처럼, 병원을 위해 환자를 위해 서로 가슴 뛰는 열정으로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튼튼한 속편한내과가 만들어지고 병원 10주년을 기쁨으로 맞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둔산 속편한내과 개원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0년이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장수 할수 있도록 초심 잊지 않고 일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지금의 속편한내과가 앞으로도 환자들이 감동하는 병원. 환자들이 믿고 신뢰하는 병원. 환자들에게 항상 사랑받는 병원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둔산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CS 윤희숙 팀장

“내집처럼 드나드는 병원”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분들



먼저 둔산 속편한 내과의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친절하신 의사선생님들과 모든 의료진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편안한 내집처럼 드나든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해마다 건강검진 할때마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서 누구에게나 권해 드리고 싶은 병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환자와 함께 하는, 지역에서 우뚝서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자 최정희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현신적인 노력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어서 매우 긴 시간인 줄 알았는데, 벌써 10주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06년에 개원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나네요.

향후 의료보다는 예방 및 조기진단이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소화기 내시경 전문병원 및 검진센터를 같이 준비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검진시설 및 장비를 준비했지만, 내시경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점차 늘고 있었지만, 건강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은 미미하였습니다.

박찬욱 원장과 김병기 부장과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던 때가 눈에 선합니다.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건강검진센터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국민 건강보험 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의 활성화로 인하여 암과 성인병의 조기 진단이 우리 1차 의료기관의 주요 업무가 되었고 우리 병원은 진료의 방향을 잘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속편한 내과의 모토는 대학병원처럼 전문적인 진료를, 동네병원처럼 편안한 서비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병원과의 차이점은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여러 원장들이 주치의로서 당일에 결과 상담 및 처방을 하고, 정밀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나 용종 절제 수술과 같은 시술을 당일에 one-stop에 시행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을 대비하며, 더욱 전문화된 소화기 내시경 전문 병원, 그리고 암과 성인병의 조기진단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검진센터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병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800평 규모의 면적과 64channel MD CT, 최상급의 초음파, 디지털 유방촬영기, 최신 내시경 장비 등 매년 수입의 많은 부분을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여 왔고, 소화기내과 전문의 8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하여 전국 36개 속편한 내과와 연합하여 정기적인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원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10년도 지나온 10년처럼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과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둔산/서대전 속편한내과를 믿어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의원 대표원장 진영주





둔산속편한내과의 다음 10년

다음 10년,
그 시간은
이 곳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속편한내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희망을 만들어 온 둔산속편한내과 10년,

다음 10년을 위한 우리의 용기와 열정,
그 미래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6번 KMT빌딩 4층~6층
연락처	외 래 (042)526-3010 종합검진 (042)526-3020 영상의학 (042)537-3010
홈페이지	http://www.sok88.in

